

속뜻은 물결

통권 277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0₂₀₂₂



‘석탄대신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 9.24 기후정의행진

9월 2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9.24기후정의행진을 위해 기후정의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서울에서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의 나라'를 외치다



2022년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개최

- ▶ 발행일 2022. 10.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감사 인사

4 지역환경초점1

| 2021년 온실가스 배출 동서발전 6위, 현대제철 7위

5 지역환경초점2

|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6 지역환경초점3

| 서울에서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의 나라'를 외치다

8 지역환경초점4

| 2022년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개최

9 지역환경초점5

|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즉각 사과하라"

10 지역환경단신1

| 낭비성 토건사업 인공 '호수공원' 조성 추진 중단하라!!

11 지역환경단신2

| 당진시, 소들섬 철탑 공사 한전 고발

12 전국환경초점1

| 농작물, 수돗물에 공기까지...점증하는 '녹조 독소' 위험

14 전국환경초점2

| 삼성전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16 전국환경초점3

| 반복되는 원전 고장-사고, 안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원전 확대 중단해야

17 9월 살림살이

18 생활 속 환경! 머리 속 실천!

| 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20 9월 활동소식

22 10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감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의 초입.

경쾌한 발걸음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후원의 밤을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동적 순간들과 뜨거운 활동들로 채워진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지난 23년,

모두 님들의 격려와 후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위한 새로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여러분들과 손잡고 시민 속으로 지구를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후원의 밤에 보내 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을 가슴에 새기고,

기대하는 모든 바들을 헤아려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사무국장 김정진 드림

2021년 온실가스 배출 동서발전 6위, 현대제철 7위

석탄 사용 상위 7개 업체 전체 배출량의 45.2% 차지

2021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석탄을 사용하는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45.2%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순위에서 당진화력을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전국 6위, 현대제철이 7위를 차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한 2021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개 업체 모두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이나 제철업종이며 이들 상위 7개 업체의 배출량은 277,925,280톤(tCO₂-eq)으로 전체 배출량 614,438,420톤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서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2,808,320톤으로 2020년 대비 2,096,792톤이 줄어 3위에서 6위로 3계단 하락했고 현대제철은 28,489,305톤으로 전년 대비 133,800톤이 줄었으나 배출량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7위를 유지했다. 가스복합화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을 운영하

는 지에스이피에스(GS-EPS)는 3,166,693톤으로 전년 대비 625,363톤이 늘었고 순위도 36위에서 34위로 2계단 상승했다.

한국동서발전의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6.01%가 감소한 이유는 이용율 하락이 주 원인으로 여겨진다. 동서발전의 주 사업장인 당진화력은 2021년 이용율이 54.82%로 2020년에 비해 3.8%가 줄어들었다. 지에스이피에스의 배출량이 24.61% 증가한 이유는 이용율 상승때문으로 여겨진다. 현대제철은 큰 변동이 없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큰 고난을 겪어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생존의 과제”라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의 조속한 탈석탄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 사무국]

순위	업체명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q)
1	(주)포스코	78,490,207
2	한국남동발전(주)	37,228,227
3	한국남부발전(주)	34,457,856
4	한국서부발전(주)	33,358,236
5	한국중부발전(주)	33,093,129
6	한국동서발전(주)	32,808,320
7	현대제철(주)	28,489,305
8	삼성전자(주)	14,494,447
9	쌍용씨앤이(주)	10,610,902
10	S-Oil(주)	10,036,497
	⋮	
34	지에스이피에스	3,166,693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이날 37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해변환경정화활동을 참여했다.



해변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17일 대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는 이름으로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학생과 시민 등 37명이 참여했다.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전 9시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버스로 출발해 도비도에서 내려 대호방조제 해변을 따라 환경정화활

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호방조제에 돌 틈에 버려져 있는 스티로폼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와 함께 비닐, 페트병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세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10월 22일(토)에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네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당진신문]

서울에서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의 나라'를 외치다

기후정의열차 타고 기후정의행진 참가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후정의 열차 앞에서 찍은 모습



기후위기 충남행동 참가자들이 모여 9.24정의행진에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기후정의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를 외쳤다. 9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3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11명은 이날 10

시30분 당진에서 출발해 신레원역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준비한 기후정의열차에 탑승해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다. 924 기후정의행진 당진참가단은 햇빛과 바람을 상징하는 모자, 바람개비와 함께 피켓을 들고 기후정의행진 집회에 참가했으며 집회 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각역을 거치는 서울 시내 거리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 대신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회원들



기후정의열차

햇빛과 바람으로' 조속한 에너지전환을 촉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거리행진 방송차량에 탑승해 “석탄발전은 부정의하다. 그동안 수도권은 편하게 혜택을 누리고 지방은 위험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앞장서자. 재생에너지만큼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후부정의를 넘어 정의롭게 함께 하자”

고 서울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기후정의열차는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924 기후정의행진 참가를 위해 철도노조와 협의해 무궁화호 객차 하나를 임대했으며 서천역부터 천안역까지 장항선을 따라 각 지역에서 924 기후정의행진 충남 참가자들이 탑승했다.

[글: 사무국]

‘자연과 공존하는 삶터,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

2022년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개최



창립23주년 후원의밤에 80여명이 참여했다.



‘난리부르스’ 식전행사로 밴드공연을 하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9월 26일 메가패밀리리뷰페에서 2022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터,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8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후원의 밤은 식전 순서로 2022년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활동 영상을 상영한데 이어 개막 공연이 오랜만에 난리부르스의 밴드 공연으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어 후원의 밤 참가자 소개, 공동의장단 인사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과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운동권 공동의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연대사에서 김춘이 사무총장은 ‘당진환경

운동연합’이름의 8행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연대사에 이어 어기구 국회의원의 축전, 조상연 시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당진시 정본환 경제환경국장, 당진화력 황영호 환경대의협력실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진용 부회장,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박기남 상임이사가 앞에 나서 후원인 ‘응원의 한마디’를 축하와 응원 인사를 전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사무국이 직접 만든 ‘수제 천연비누’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줘 감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글 : 사무국]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즉각 사과하라”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가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지난 14일 현대제철 정문에서 실시했다.

당진지역 시민단체가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지난 14일 현대제철 정문에서 실시했다. 20여 개 시민단체가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침출수는 현대제철이 송산2일반산단 내 슬라브 보관을 위해 복토한 슬래그 골재에서 강알칼리성의 침출수가 석문호 내수면으로 흘러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에 따라 지난 8월 8일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고농도 알칼리인 pH12.5의 수치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대책위가 현대제철 앞에서 슬래그 침출수에 대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며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일경 채수한 침출수에 미꾸라지를 넣는 실험을 현장에서 진행했다. 일반 물에서는 살아있던 미꾸라지가 침출수로 옮긴 지 30초 안에 활동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금까지 석문호 내수면

일대에서 발생한 피해가 슬래그 침출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용 석문호 내수면 어촌계장은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말조개가 대량 폐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업이었던 민물새우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출수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정의선 회장의 즉각 사과 △당진 시민이 제안하는 방안으로 진실규명 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 △관리감독기관인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 방류사건에 따른 조사를 통해 현대제철에 피해보상 요구 및 석문호 원상복원 조치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당진시민은 현대제철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당진시대]

[논평]

낭비성 토건사업 인공 '호수공원' 조성 추진 중단하라!!

수백억원 들인 당진천·역천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당진시가 최소 1200억원 ~ 최대 37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2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2억7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당진시의회에 보고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낭비성 토건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인공 호수공원 조성을 반대하며 그동안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친 당진천·역천부터 제대로 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호수공원이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친 당진천도 부족한 수량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상류로 퍼올려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수계면적이 작아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인 당진에서 대규모 인공 호수공원은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당진천과 비슷하게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으로 조성되는 호수공원은 자원과 에너지, 예산을 낭비하는 토건사업으로 전락하고 결국 주변지역 부동산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토건·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의 혈세 수 천억원을 들여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당진에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시급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인공 호수공원 조성에 반대하며 이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친 당진천·역천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 9. 15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당진시, 소들섬 철탑 공사 한전 고발

50cm 이상 절토 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국전력, 허가 없이 공사 강행해 고발 조치
주민들 사비 들여 측량...500평 넘게 파헤쳐



소들섬에 송전철탑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공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 공사를 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1740㎡(약 526평) 규모에 걸쳐 50cm 이상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50cm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한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소들섬 공사 현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해, 그동안 주민들은 드론을 띄워 수시로 현장을 모니터링 해왔다”며 “개발행위 허가 없이 파헤쳐진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없이 진행한 불법 공사를 방지하고 있던 당진시 행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당진시대]

농작물, 수돗물에 공기까지...점증하는 '녹조 독소' 위협

낙동강변 녹조 1km 밖 주택가까지 에어로졸 전파
 해외연구서 녹조 증가와 간질환 사망 상관관계 확인
 환경부 "연구용역 통해 과학적으로 검토 예정" 신중론
 환경단체, 29일 공동조사 간담회서 심각성 개진키로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마실 물에 이어 숨쉬는 공기에서까지 녹조 원 인균이 발견되는 등 '녹조 독소'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국회·부산시청·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의 녹조(남세균)가 공기로 전파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액체미립질(에어로졸) 형태로 수변에서 1km 이상 떨어진 주택가까지 녹조가 날아간 것이 확인됐다는 얘기다. 창원대·부경대·

경북대 연구팀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낙동강 일대 12개 지점(중복포함)에서 채집한 공기에서 녹조가 포착됐다. 또 포집한 남세균을 분석한 결과 간 독성과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물론, 뇌 질환 원인 물질인 'BMAA'(β-Methylamino-L-alanine)가 검출됐다.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은 강가로부터 1.17km 떨어진 아파트단지 옥상에서까지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세균 생성 독소는 분자 구조에 따라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

○ 마이크로시스틴

일시 (날씨)	지점	물속 MCs ($\mu\text{g/L}$)	공기 중 MCs (ng/m^3)	뉴햄프셔주 강 공기 중 MCs 최저농도 비교 (0.013 ng/m^3)	수면 이격 거리 (샘플러 설치 높이 0.5m 동일)
8.22. (맑음)	대동 선착장 배 위	49.41	6.8	523.0배	0m
	대동 선착장 작업장	-	5.4	415.3배	3m
8.30. (비.흐림)	화원 유원지	366.44	3.68	283.0배	3m
	낙동강 레포츠벨리	0.73	0.28	21.5배	2m
	본포생태공원	1.77	4.69	360.7배	1m
	대동 선착장	5.20	0.19	14.6배	3m
	부산 00 APT ⁵⁾	-	1.88	144.6배	1.17km
	삼락생태공원	계실형	0.20	15.3배	3m
9.02. (맑음)	함원군 저수지	5,337	-	-	-
	마을회관	-	0.1	7.69배	15m
	마을 정자	-	2.4	184.6배	5m
	진흥원 주차장	-	1.7	130.7배	108m

각 조사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 환경운동연합 제공
어, 위험 범위는 최소 1.5km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다. 실제로 낙동강에서 1.5km 떨어진 가정집에서
빗물 떨어지는 처마 밑으로 생성된 녹색 띠를
확인한 결과 남세균이었고, 낙동강에서 사람이
쓰고 다닌 마스크 표면에서도 남세균의 부착이
확인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 안전에
위험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에서는 남
세균 면적이 1% 증가하면 비알콜성 간질환 사망
률 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부경
대 이승준 교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4대강 공사
구간 일대에서 비알콜성 간질환이 증가했다는
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낙동강 물,
인근 경작지 농산물, 정수된 수돗물에 이어 낙동
강 주변 공기까지 남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 2월 부경대 연구팀에 의해
낙동강 물로 재배한 무에서 $1.85\mu\text{g/kg}$, 배추에서
 $1.126\mu\text{g/kg}$, 3월에는 2종류의 쌀에서 각각
 $3.18\mu\text{g/kg}$ 과 $2.53\mu\text{g/kg}$ 씩 마이크로시스틴이 검
출된 게 확인됐다. 수돗물은 지난 7월 3개 시료

에서 $0.226\sim 0.281\mu\text{g/L}$ 검출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식품이나 마실 물을 통
한 남세균과 독소의 인체 유입은 소화기
와 간을 거치면서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 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 유입은 더
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사람 콧속 후각
상피는 점막이 얇아 독성 물질 흡수가 빠
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향후 실시될 민관 공동조사에서 낙동강
녹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하
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사범
위를 수돗물 속 마이크로시스틴 여부에
한정하는 쪽으로 구상 중이다. 공기 오염
과 관련해서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을 예
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에어로졸
에 대한 해외 연구가 많지는 않으며, 관련 연구
에서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한 친수
활동 영향, 인근 지역 영향 가능성 등을 과학적
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
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
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9일 세종
청사에서 예정된 환경부와의 민관 공동조사 관
련 간담회에서 최근 공기 전파 사례까지 녹조독
소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
이다. 임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수십년 뒤
에나 정책현안이 됐고, 가슴기살균제 문제 역시
수십년 지나서야 피해가 인정됐다. 그동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며 "녹조독소 문제가 정책
과제가 되는 데도 똑같이 수십년을 허비하는 어
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노컷뉴스]

삼성전자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RE100 가입여부가 ‘신 무역장벽’ 추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가격 비싸
삼성 “정부 공급 확대·정책 지원” 언급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만
“재생 공급부족은 산업 리스크 확대” 비판



RE100 가입 기업 [출처: 한국 RE100 위원회]

삼성전자가 15일 친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2021년 기준 25.8TWh)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은 뒤늦게나마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지상과제인 탈탄소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가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

이다. 이날 기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모두 381곳이다.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투자사는 물론 이미 가입한 기업들이 협력사에 가입을 요구하면서, RE100 가입여부가 ‘신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사업장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시점을 2050년으로 ‘멀리’ 잡았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삼성쪽 설명이다. 202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7162GWh였는데 같은 해 삼성전자의 국내 전기 사용량은 1만6114GWh였다. 국내 재생에너지 1년 발전량의 43.4%를 삼성전자 1개사가 쓸 정도로 국내 재

생에너지 발전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총발전량 577TWh 중 43TWh)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약 30%)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도 세계평균보다 비싸다. 지난 2020년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뉴에너지 파이낸스(블룸버그NE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태양광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MWh(메가와트시) 당 106달러로 미국(44달러)보다 크게 높았고, 세계 평균(50달러)과 견줘도 두 배 이상이었다. 이날 삼성전자가 ‘핵심 반도체 사업장이 자리 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기업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 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발전사들이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한 비율만큼 REC를 구매해서 의무비율을 채울 수 있는데, 이 REC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구매하는 방식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REC 구매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의 박유경 아태지역 책임투자 총괄이사는 “(삼성전자의) 이번 선언은 한국 정부의 기후 관련 공약이 후퇴하는 듯 보이는 시점에 나왔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APG는 지난 2월 삼성전자 등에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서한을 보낸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사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사 결정 때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은 바로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논평]

반복되는 원전 고장·사고, 안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원전 확대 중단해야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되는 사고 발생해

올해만 벌써 7번째 사고, 한수원은 기본적인 원전 안전 관리에 집중해야

부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발생건수
고리	1	2	1	4	2	1	11
한울	1	5	1	3	4	3	17
월성	4	3	1	0	1	0	9
한빛	0	3	5	1	0	2	11
신고리	1	1	0	2	3	0	7
신한울	0	0	0	0	0	0	0
신월성	0	0	1	0	0	1	2
총발생건수	7	14	9	10	10	7	57
가동호기수	25	25	26	26	26	27	155
발생빈도	0.28	0.56	0.35	0.38	0.38	0.26	0.37

원전 사고 및 고장 현황(출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오늘(9월 8일) 오전 10시 38분, 정상운전 중이던 신월성 2호기의 제어봉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고장으로 인해 제어봉이 낙하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고리 1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다. 올해만 벌써 7번의 원전 사고·고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원전 확대론’만 외치는 실정이다. 최근 6년(2017년~2022년 현재) 동안 발생한 원전 고장·사고는 총 57건이다. 매년 약 9.5회의 원전 고장·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고장·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유독 많은 고장·사고가 발생했고(14회) 그 이후로도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전 고장·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방사선 영향은 없다’, ‘원자로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마치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고 원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고장·사고는 한수원이 원전 관리 자체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원자로 출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수원이 과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폭우, 태풍 등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 재난이 발생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고리 1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2년 전 발생한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8기의 원전(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원전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에너지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라. 또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2. 9. 15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9월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1,842,397	인건비	급여	5,675,000
회 비	개인회비	5,745,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6,310
	계	5,815,000		계	6,507,1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5,454,610	경상비	복지후생비	148,000
	법인후원	19,300,000		세금과공과금	83,830
	계	24,754,610		소모품비	220,0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0		지급수수료	483,890
	계	0		기타운영비	20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0	계	1,137,620	
	계	0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553,800
보조금	기타사업	0		생태보전사업	1,202,890
	계	0		생화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0		조직 회원사업	1,028,430
	계	0		모금사업	795,03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연대사업	421,600
	계	0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0		계	4,001,750
	계	0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0
차입금	차입금	0		계	0
	계	0	이월액	이월액	30,765,507
		계		30,765,507	
월수입 총계		30,569,610	월지출 총계		11,646,500
수입 합계		42,412,007	지출 합계		42,412,007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1회용컵 재활용률 5%, 95%는 쓰레기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1회용컵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수거·회수체계를 만들어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표준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컵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예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년간 준비한 제도예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6월 10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며 시행일 불과 3주 전에 제도를 유예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어요. 환경부가 어떤 이유로 유예 조치를 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는 반납이 안되나요?

환경부는 2년간 300여 차례의 회의를 하며 컵 반납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반납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A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B브랜드에 반납하는 것

환경부가 결정사항을 뒤집고 교차반납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컵 회수는 원칙적으로 커피판매점에서 책임져야 해요. 해당 브랜드에만 컵을 반납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컵을 반납할 장소가 줄어들어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핵심 이유 하나가 교차반납 금지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차반납은 꼭 허용해야 해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증금액이 낮아지면 반납율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맞아요. 보증금액이 줄어든다면 소비자는 컵 반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반납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보증금액 인하를 검토하는 중이죠. 보증금액 300원은 2년동안 4차례의 설문조사와 여러 의견을 검토해 결정할 금액이에요.
낮은 보증금액은 교차반납과 마찬가지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유예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보증금액을 변경한다면 이를 변경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보증금액 인하는 절대 안돼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용기를 사용한다던데, 표준용기를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표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기 사용을 강제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표준용기를 쓰지 않으면 수거·재활용 과정과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표준용기는 재활용이 잘되게 하기 위해 컵 표면에 인쇄를 금지하고, 재질도 PET으로 통일했어요. 표준용기, 비표준용기 모두 똑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면 브랜드 로고를 넣고 다른 재질로 만든 비표준용기를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표준용기 사용에 대한 금액을 기존의 결정사항처럼 더 높게 설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 1회용컵을 매장 외에 반납할 곳이 있나요?

환경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서울시의 경우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의 금지로, 다회용컵의 사용이 확대될 것에 따라, 다회용컵 반납의 편의성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800대 설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를 서울도 아닌, 전국에 50대를 설치한다고 해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더 많은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컵 반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답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불편을 겪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서 현금반환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예 이후 검토되는 내용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1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을 위해, 시민을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마음껏 공유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 #1회용컵보증금제_정상화
- #1회용컵보증금제양보못해
- #똑같은실수는_이제그만
- #언제까지_기업편만들거야
- #보증금액인하불가
- #교차반납실시하라

카드뉴스 다운로드: bit.ly/1회용컵보증금제_정상화

한국환경회의



9월 운영위원회

9월 6일 당진환경운동연합 9월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및 9.24 기후정의행진 홍보 캠페인

9월 7일 당진 계성초 사거리에서 탈석탄법 제정과 9.24기후정의행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주간 선포 기자회견

9월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석탄대신 바람과 햇빛으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9월 19일 당진지속협에서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당진캠페인

9월 21일 당진구터미널에서 9.24기후정의행진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23 주년기념 후원의밤

9월 26일 당진메가페밀리리뷰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밤을 80여분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01 일반사업

- ❖ 10/04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05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0/06 충남도 정의로운전환 조례 준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0/07 도정 100일 노동·농민·시민사회 기자회견 - 도청 브리핑룸
- ❖ 10/07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1차 공론장 - 온라인
- ❖ 10/07 에코생협 운영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 ❖ 10/08 금강한마당 - 대전 노루벌적십자생태원
- ❖ 10/11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10/13 충남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답사 - 전남 신안
해나루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교육 - 해나루보호작업장
환경교육네트워크 워크숍 - 당진지속협
- ❖ 10/15 서울대 환경대학원 당진 현장견학 안내 - 현대제철, 당진화력, 대산공단
- ❖ 10/17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 10/19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0/20 환경재단 미국 기후활동가 현장견학 안내 - 당진화력
- ❖ 10/21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 에코생협 당진점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민특강 - 내포혁신플랫폼
해나루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교육 - 해나루보호작업장
- ❖ 10/22 제4차 해변 환경정화활동 - 석문방조제
- ❖ 10/24 정의로운전환 사회적 대화 - 고대운동장 트레이닝센터
- ❖ 10/25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10/28~10/29 환경연합 조직혁신방안 대토론회 - 미정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0/25(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슬래그 오염수 유출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새내기 회원

김봉일(우두동), 김진호(수청동), 이상현(서울시 관악구)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본갑
 구본재 구본찬 구본평 구본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김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성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환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한순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근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태식 박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호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자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상선 이경미 이경용 이경희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해은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석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정수 함효진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 2022년 10월 22일(토) 오전 9시

장소: 석문방조제

내 용

-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2022 에코두레생협 당진 나눔장터

풍성한 가을처럼 여러분의 이웃사랑을 보여주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나에게서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들! 장터에서 판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증해 주세요~ 나눔 장터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전달됩니다.

일 시: 10월 21일 (금) 오전 10시 ~ 오후4시

장 소: 에코생협 당진점 주차장

**기증 물품: 옷, 가전제품, 아이들 장난감, 책, 주방용품 등
(10월 19일까지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